

논 단 / 자 료

## 대학도서관의 영상자료 지원 서비스

- 서울대학교 영상자료실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수 현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 < 목 차 >

1. 들어가며
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영상자료실
  - 2.1 영상자료실 현황
  - 2.2 영상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분석
  - 2.3 타 대학 도서관 벤치마킹
  - 2.4 영상자료실 환경 개선 사업
  - 2.5 영상자료실 환경 개선 사업 결과
3. 향후 개선점 및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 1. 들어가며

시청각자료는 “이미지나 소리, 더 나아가 텍스트를 사용하는 미디어나 포맷의 저장·전송을 수행하는 정보 콘텐츠를 묘사하는 일반적인 용어(generic term to describe information

content held in storage and transmission media, and formats that use images and sound rather than, or sometimes in addition to, textual matter)"로 정의되어 있다(Feather and Struges, 2002). 일반적으로 시청각자료는 오디오카세트, 음악 CD, 비디오, DVD, CD-ROM, 슬라이드 등의 매체로 인지되고 있다. 영상자료는 이러한 시청각자료에 해당된다.

도서관은 도서, 연속간행물 등의 인쇄자료 외에도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있다. 특히 오디오카세트, 음악 CD, 비디오, DVD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영상자료실, 시청각자료실, 멀티미디어실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지칭하여 독립된 실(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도 영상자료실을 운영하여 오디오카세트, 음악 CD, 비디오, DVD자료의 수집·보관 및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쇄 자료의 이용에 비하면 영상자료의 이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해당하지만 영상자료의 운영은 앞으로 도서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21세기가 공감각적 영상문화의 시대이며,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은 각종 자료들을 수집, 정리, 보존 및 축적하는 동시에 이를 신속·정확하게 교수 및 학생의 연구 자료로 제공하는 봉사기관이므로 이용자의 요구를 예측하여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서울대학교 영상자료실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대학도서관의 영상자료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영상자료실

### 2.1 영상자료실 현황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영상자료실은 2005년 6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들이 출연한 발전기금으로 설치되었다. 중앙도서관 4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DVD, 비디오테이프(VHS), 음악 CD, 카세트테이프 매체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전용석 24석이 설치되어 있다.

2008년 12월 현재, 영상자료실에는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총 12,138매로, 매체별 구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영상자료실 소장자료 현황 (2008. 12. 31. 기준)

매체형태	별칭기호	소장건수	비 고
DVD	DVD	6,990	블루레이 디스크 <sup>1)</sup> 포함
비디오테이프	AVV	2,358	
CD	AVC	2,740	
카세트테이프	AC	50	
총 계		12,138	

영상자료실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분실방지를 위하여 모든 자료는 도난방지용 감응테이프가 부착된 키퍼 안에 넣어서 배열하고 있으나, 일부 DVD나 CD자료의 경우 규격화된 키퍼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자료만 별도로 서장에 보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할 시 담당 사서가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도 모두 이용자가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영상자료실에서 관리하는 자료 중 이용률이 낮은 일부 비디오테이프는 연속간행물 보존서고에 비치해놓아, 이용자가 웹으로 신청하면 담당 사서가 보존서고에서 해당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이용자 열람 후 다시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영상자료실 소장 자료는 파손 가능성이 높고, 파손되었을 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관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내 수업 및 행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영상자료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외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전용석은 다양한 매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구성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멀티미디어 전용석 구성 현황

기기명	지원포맷	보유대수	비 고
DVD·비디오 콤보 플레이어	DVD, 비디오테이프	9	
DVD 전용 플레이어	DVD	10	
블루레이 전용 플레이어	DVD	1	
데스크톱 컴퓨터	DVD, CD	3	네트워크 미연결
오디오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CD	1	
총 계		24	

1)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는 고선명(HD) 비디오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광 기록방식 저장매체로, 일반 DVD 플레이어에서는 재생이 불가능하고 블루레이 전용 플레이어를 사용하여야만 재생이 가능하다.

2008년 1월 정보관리과 전산지원실이 주체가 되어 소설 원작의 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도서관 '책, 종이를 벗고 화려한 변신을 꿈꾸다'를 개최한 이후부터 영상자료실의 운영을 전산지원실이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영상자료실 전경

## 2.2 영상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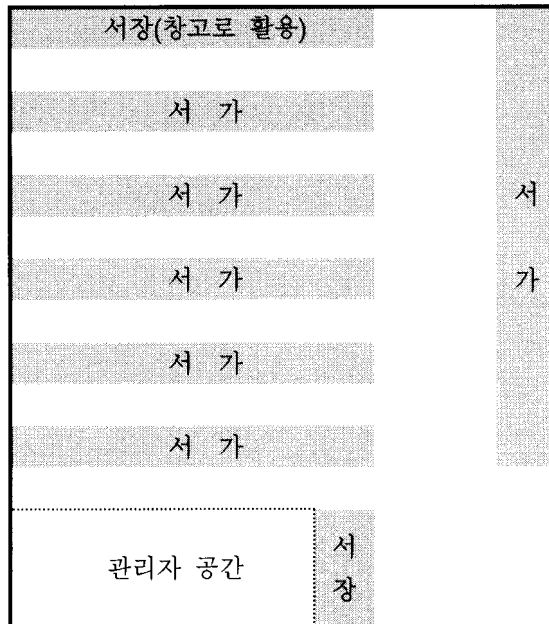
2008년 초, 영상자료실은 상대적으로 타 자료실에 비해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는 영상자료실이 4층 내측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시선이 닿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을 근본적인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이는 단시일 내에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 원인 외의 다른 문제점이 별도로 존재하리라고 여겨졌다. 영상자료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당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먼저 영상자료실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았다.

영상자료실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보면, 1) 청구기호 식별의 불편함 개선, 2) 자료 배열, 3) 영화자료의 분류, 4) 장서 확충, 5) 적극적인 홍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청구기호 식별의 불편함과 두 번째 자료 배열의 문제점은 환경적인 영향에 기인하고 있었다. 영상자료실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공간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협소한 자료 소장 공간에 모든 자료를 배열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배열하기위해 서가 간 간격이 다소 좁았다. 또한 서가 높이에 의해 그림자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자료를 확인하는 데 용이하지 못했다.

당시 영상자료실의 자료배치는 [그림 2]와 같았는데, 가장 조명이 잘 들어와서 자료 확인을 하기 용이한 서가는 오른쪽 벽면에 위치한 서가였다. 이 서가에는 비디오자료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비디오자료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림 2] 영상자료실 서가배치도

DVD자료의 경우에는 자료의 물리적 특성이 이용자의 자료 확인에 불편함을 야기하였다. 대부분의 DVD자료는 1개의 디스크(disc)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의 폭은 약 1.5cm에 불과하다. 또한 도난방지용 키퍼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눈에 청구기호를 인지하기가 어려워져 청구기호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DVD자료를 서가에서 꺼내서 확인해야만 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이용자가 서가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고, 이것이 영상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자료실 소장자료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영화 DVD자료에서도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영화자료의 경우 보통 장르별·국가별로 확장하여 분류하고 있었는데, 영화를 나타내는 분류기호 791.43 이후로 장르·국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3byte 이상의 숫자가 추가적으로 부가되고 있어, 단순히 서가를 브라우징 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청구기호를 파

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분류 기준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필요하였다.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어느 한 장르로만 한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국가별로 확장하기에도 명확한 기준점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확장 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영화자료에 대해 통일된 분류 방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표 3] 기존 영화자료 분류 사례

분류번호	분류방법
791.43	'영화'분류
791.430973	'영화'분류 + 지역구분 : 미국
791.43616	'영화'분류 + 장르 : 비극
791.43651	'영화'분류 + 특정인분류

영상자료실 소장 장서도 다른 매체자료에 비해 그 양이 적었으며,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용자가 자유롭게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쇄 자료에 비해, 시청각자료는 자유로운 신청이 어려워서 이용자의 신청이 매우 적었다.<sup>2)</sup> 또한 DVD자료는 구입 가능 주기가 짧고 일부 자료의 경우 소량만 생산되어 단시간 내에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자료를 구입하지 않으면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2007년에 연구 및 학술용 영상자료를 확충하기 위하여 본교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활용하여 영상자료실 소장해야 할 양질의 고전영화 목록을 해당분야 연구자에게 의뢰하여 이를 구입하고자 한 바 있었으나, DVD자료의 수명 주기 특성 상 구하기 힘든 자료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외에도 모든 단과대학·학과에 공문을 보내 영상자료 신청을 독려한 바 있으나, 일부만이 필요 자료를 신청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영상자료실 소장 장서를 확충하는 것이 이용자의 영상자료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서관 홍보는 “도서관업무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의된다.(사공철 등, 1996)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영상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알리면 영상자료실에 대한 이해 및 이용자들의 이용률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하였다.

### 2.3 타 대학 도서관 벤치마킹

2) 도서관 홈페이지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 비도서자료도 신청을 받고 있었으나, 실제 영상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가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이용자의 수는 거의 없었다.

벤치마킹(Benchmarking)은 경영혁신 기법의 하나로 업무수행의 개선을 위해 가장 우수한 방법을 도입 및 적용하는 프로세스이다. 이는 조직의 규모나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실무에의 적용이 용이한 방법이다. 다른 대학도서관의 영상자료실, 혹은 그에 준하는 부서를 벤치마킹하면 우리 도서관의 영상자료실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 대학 중 영상자료실이 활발하게 운영 및 이용되고 있는 2개 대학 도서관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의 영상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영상자료실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여, 총 3개 기관의 영상자료실을 벤치마킹하였다.

### 2.3.1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 멀티미디어 열람실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 멀티미디어 열람실은 백주년기념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TV, CD, DVD,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등의 멀티미디어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296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표 4]와 같이 활용매체에 따라 영역을 5개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 멀티미디어 열람실 영역구분

영역구분	활용 가능 기기
Multimedia	CD, DVD title Play 전용 PC 및 멀티미디어 재생관련 S/W
Audio	Audio 장비, 어학 학습기 등
Video	TV, DVD Player 등
Virtual Reality	42" PDP, DVD Player, 진동소파 등
New Arrivals	Portable DVD Player

이 중 New Arrivals 영역에서는 휴대가 가능한 DVD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신착 DVD나 추천 DVD의 내용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재생해주어, 이용자로 하여금 시선을 유도하고 자료 선택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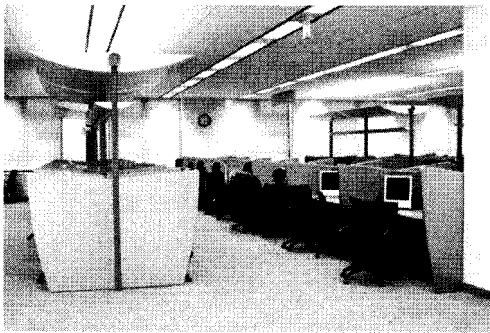
멀티미디어 열람실의 이용은 좌석배정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당일 현장에서 비어있는 좌석 선택 후 이용하거나 사용 1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실은 폐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번호 순으로 자료가 배열되어 있다. 멀티미디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즉석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신청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의 신청 및 인수는 멀티미디어 열람실 전면에 위치해 있는 데스크에서 담당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열람실 소장 자료는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열람실 내에도 직접 소장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프린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열람실의 옆에는 고화질의 디지털 시네마 시스템을 구축한 소극장 개념의 공간으로 Theater(영화관)가 자리 잡고 있다. Theater에는 63인치 PDP, DVD 플레이어 및 AV시스템과 7.1채널 스피커가 구비되어 있고, 2인용 소파가 9개 비치되어 총 18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Theater 이용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열람실과 Theater 모두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방학기간 중의 토요일에는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 멀티미디어 열람실 [그림 4]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AV실

### 2.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AV실(음향영상자료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AV실은 어학관련 도서 및 비도서자료, 영화자료, 음악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소장매체는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이다.

자료실은 개가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되었다. 영화자료의 분류 시에는 791.43으로 간략하게 분류하였으며, 저자 대신 자료의 제목을 기준으로 하여 저자기호표를 부여하고 있었다. 수서는 AV실 담당사서가 전담하고 있으며, 영상자료의 발매량이 인쇄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흥미 유발 또한 AV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생각하여 주제나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수서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서가 앞에는 별도 공간이 있어 최근 입수된 DVD를 비치하였고, 신착 DVD 코너도 마련하여 놓았다. 이 장소에 있는 자료들은 다른 자료들보다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였다. 또한 이 공간에는 잡지와 어학테이프 및 CD, 어학문제집, 사전 등이 비치되어 영상자료 감상 외에 어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 공간에는 디지털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



는데, 평소에는 텍스트나 포스터 이미지를 이용해 신착자료를 홍보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디지털 게시판 옆의 RFID 안테나에 미리보기를 원하는 자료를 접근시키면 해당 자료의 간략한 설명 및 스크린샷, 트레일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나, 열람실 내에서도 직접 소장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프린트하여 비디오, 영어목록 DVD, 한글 DVD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자료의 이용은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 멀티미디어 열람실과 유사하게 무인좌석발급기를 이용하여 좌석 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좌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좌석발급기 측면에는 자동 대출기를 설치하여 담당 사서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78석의 이용좌석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요 설비로는 비디오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DV D·비디오 콤보 플레이어, 어학 학습기, 자료검색용 PC, 위성방송수신기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2인이 동시에 관람을 원할 경우를 위해 헤드폰이 2대 비치되어 있는 2인 이용 가능 좌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단체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 감상실이 AV실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화 감상실 내에는 40석의 좌석이 위치해 있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영상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AV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토요일은 휴무이며 방학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 2.3.3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자료실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자료실은 국내에 출시된 모든 영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출시된 비디오테이프나 DVD자료 이외에도 고전을 중심으로 미출시된 한국영화를 업선하여 필름에서 고화질의 매체로 변환한 KOFA 변환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외에 영화 음악(OST) 코너를 신설하여 일부 CD자료도 소장하고 있으며, 영화 관련서적, 국내외 영화관련 잡지, 영상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시나리오 등의 문헌이 소장되어 있다.

영상자료의 경우 폐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번호 순으로 자료가 배열되어 있다.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즉석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신청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문헌자료는 개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석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용좌석은 감상 가능 인원수 또는 용도로 구분되는데, 1인 감상석이 17석, 2인 감상석이 7석, 멀티미디어석 10석, 영화음악감상석 4석, 그리고 다인감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멀티미디어석은 디지털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좌석으로 영화 VOD, 포스터/스틸 이미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다인감상실은 최대 10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하다.

AV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

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2.4 영상자료실 환경 개선 사업

문제점 분석 및 타 기관의 벤치마킹이 종료된 후 우리 도서관의 영상자료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영상자료실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먼저 가장 이용률이 높은 영화자료의 분류방법을 간략화 하였다. 수서정리과와의 협의 하에 영화자료는 791.43 이후로 확장하여 분류하지 않고, 감독을 중심으로 하여 저자기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신규로 입수되는 영화자료는 모두 이와 같은 간략분류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에 분류기호가 부여된 영화자료 약 1,000여 건은 모두 재분류 및 정비작업을 시행하였다. 재분류 및 서지 수정 작업은 수서정리과에서 담당하였고, 수정된 서지에 대한 레이블 출력 및 부착(기존 레이블 제거 작업 포함) 작업은 영상자료실 담당 부서인 전산지원실에서 하였다.

DVD	→ DVD 별치기호
791.43	→ 분류기호(영화)
H631b	→ 감독 중심 저자기호
2006	→ DVD 제작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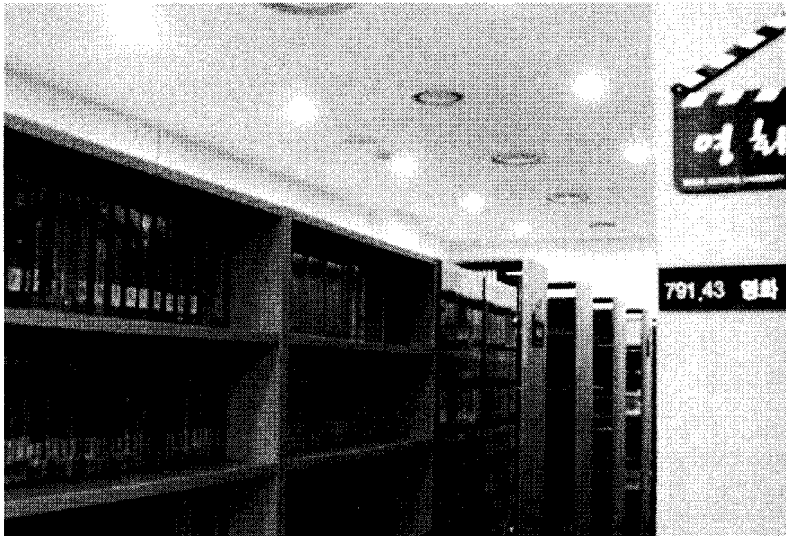
[그림 5] 영화자료 간략분류 사례

영화자료 외에 애니메이션과 드라마자료도 간략분류를 적용하였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분류기호 791.433을 사용하였으며, 영화자료와 동일하게 감독 중심 저자기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드라마자료는 영화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국가 구분이 용이하였고, 지역구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사한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놓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지역구분 09이후 국가에 한해 확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간략 분류로 인하여 분류의 통일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고, 감독을 중심으로 자료의 집중이 가능하였으며 이용자가 청구기호를 한 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좁은 서가 간격으로 인해 충분한 조명이 도달하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은 뚜렷한 개선안을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먼저 조명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보았으나, 천장에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기 배선의 문제 상 실질적으로 조명의 추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개선점을 논의하여야 했다. 논의 결과,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영화자료를 중심으로 서가를 재배열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오른쪽 벽면에 위치한 서가가 가장 조명이 잘 들어와서 자료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영화 DVD

자료를 전부 기존 서가에서 반출하여 벽면 서가로 재배열하였다. 또한 유리가 달려 있던 서장의 유리를 모두 제거하여 이용자가 쉽게 서장에 있는 자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서장 1개의 유리는 남겨 두어 규격화된 키퍼에 맞지 않는 일부 DVD나 CD자료, 팸립 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상자료실 소장 자료가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창고로 사용되던 서장 역시 모두 서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리를 분리·제거하였다.



[그림 6] 영상자료실 서가 전경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서장이 아닌 서가에 배열하여 이용자가 브라우징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도난방지용 키퍼보다 큰 사이즈의 키퍼를 구입하여 규격이 큰 DVD도 서가에 통합배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얇은 케이스에 담긴 DVD도 가능한 한 서가에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영상자료실 장서 확충 및 장서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선 2007년 연구 및 학술용 영상자료 확충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 중 당시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었던 자료를 재 구입 의뢰하였다. 일부 자료의 경우 한시적으로 재발매된 자료가 존재하였고, 재발매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외국 Amazon 등을 통해 구매가능여부를 파악한 후 지역코드가 '3'이 아닌 자료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영상자료실 담당자가 영상자료를 선정하여 수서 의뢰하도록 하였다. 이는

3) 지역코드는 DVD의 판매·수요 등을 관리하고 영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낸 규약으로, 해당 지역코드가 아닌 DVD는 재생이 불가능하다. 한국은 지역코드 3에 해당하며, 미국은 지역코드 1에 해당한다.

한시적으로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상자료의 특성상, 발매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사실상 자료 입수가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적시에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실제 영상자료 수서 의뢰 신청은 매주 진행되었으며, 평균 3~40여 건의 자료가 신청되었다. 자료명이 변경되거나 지역 코드 1인 자료만 소장하고 있을 경우를 위하여 수서 의뢰 이전에 1차적인 중복검색은 영상자료실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참고정보원으로는 DVD포럼이나 한국영상자료원 웹페이지, DVD 전문 판매사이트 및 영화 관련 서적 등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전체 단과대학·학과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영상자료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매학기 '영화', '영상' 등의 검색어를 사용해 검색된 강의의 강의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수업자료로 사용하거나 참고자료로 제시된 자료들은 모두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도서관 홈페이지 '희망도서 신청' 메뉴의 도서 신청 구분 항목 중 '비도서' 항목을 추가하여 영상자료를 포함한 비도서자료의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7] 희망도서 신청 화면

영상자료가 정기적으로 입수됨에 따라 기존 영상자료의 이용뿐만 아니라 입수된 영상자료의 홍보도 중요해졌다. 새로 입수된 자료의 홍보는 영상자료실의 존재를 이용자에게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영상자료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져 도서관 블로그를 통해

매번 신착 영상자료 입수 시 입수된 자료 목록을 게재하였다. 또한 매달 대출횟수를 계산하여 인기 DVD 대출순위를 홈페이지 및 도서관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위에 언급된 개선 사업은 주로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행하였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용자가 자료 선택 시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도서관 환경에 어울리는 미려한 전시대를 설치하여 신착DVD, 인기대출DVD, 담당사서 추천 DVD 등을 전시하였으며, 영상 관련 저널을 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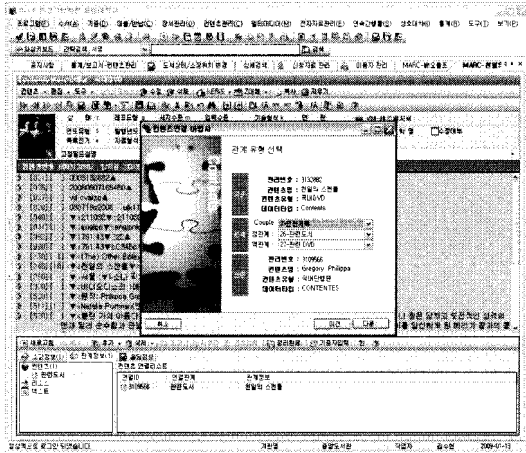


[그림 8] 영상자료실 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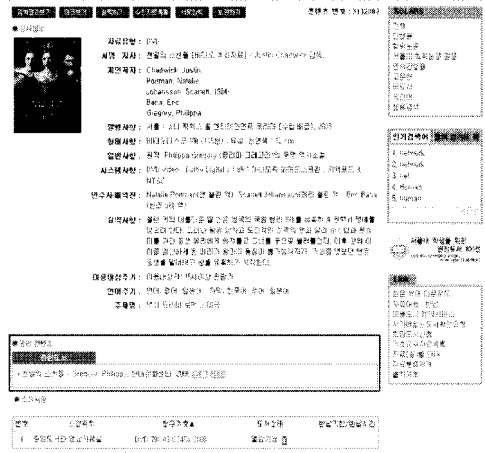
또한 이용자의 서가 탐색 편의를 위하여 청구기호 안내 가이드를 보완하였다. 청구기호 안내 가이드의 경우는 철제 서가에 부착 가능한 자석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청구기호 변경 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착탈이 용이한 가이드로 비치하였다.

멀티미디어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서는 기기 이용방법을 안내한 가이드를 제작하여 각 이용좌석 좌측에 부착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기 이용 안내 가이드는 모두 국·영문 병기로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영상자료와 관련된 다른 매체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 정보를 입력하여 이용자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수서정리과에서 자료 정리 시 SOLARSⅢ의 '콘텐츠 연결' 기능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그림 9] '콘텐츠 연결'을 통한 관련자료 입력



[그림 10] 입력된 관련정보가 표시되는 화면

시설 측면의 환경 개선은 하기가 어려웠으나, 중앙도서관 6층에 있는 세미나실을 활용하여 여러 명이 동시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세미나실의 PC 모니터를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하단으로 접어 넣어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PDP를 비치하거나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대형 화면으로 자료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상 자료 열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므로 좌석이 다소 불편하거나, 영상자료실과 세미나실 간의 거리 문제 등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정된 중앙도서관 내에 별도로 단체열람석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2.5 영상자료실 환경 개선 사업 결과

영상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개선 사업 이후,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이용률의 상승 등 확연히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5]는 영상자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고 어느 정도 운영 체계가 안정된 2008년 7월 경 간부회의에 보고된 당시 영상자료실 이용 활성화 현황 보고 자료이다. 소장 DVD 및 이용현황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대출 건수의 증가이다. 작년 대비 223% 증가하여 연구 및 교수·학습에 영상자료실 소장 자료의 기여도가 커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5] 간부회의 보고 영상자료실 이용 활성화 현황 : 2007년 및 2008년 1학기(3-6월) 기준

구분		2007	2008	증감률
소장 DVD		1,938매	5,063매	161%
이용현황	관내이용	3,534건	6,225건	76%
	1일 평균 이용자 총 이용/80(20일*4개월)일 환산	44.1명	77.8명	76%
	특별대출(교수)	77건	249건	223%

[표 6]은 동일한 방식으로 2007년과 2008년 현황을 비교해 본 표이다.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여름·겨울방학이 포함되어 있어 증감률은 [표 5]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볼 때 전년도와 비교해 꾸준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장 DVD는 약 10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관내이용은 70.1% 증가하였다. 교수의 특별대출 역시 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6] 영상자료실 이용 현황 : 2007년 및 2008년(1-12월) 기준

구분		2007	2008	증감률
소장 DVD		3,386매	6,990매	106.4%
이용현황	관내이용	9,822건	16,772건	70.1%
	1일 평균 이용자 총 이용/240(20일*12개월)일 환산	40.9명	69.8명	70.7%
	특별대출(교수)	263건	594건	152%

이와 같은 이용률 상승 외에도 ‘도서관 정보검색’ 수업 커리큘럼의 하나인 중앙도서관 견학 시 영상자료실을 견학한 이용자들은 영상자료실의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4-5인의 경우에는 이미 영상자료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다른 이용자들도 영상자료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외에 하계 계절학기에는 ‘대학국어’ 과목의 소논문 주제로 영상자료실을 그 대상으로 삼아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다방면에서 인지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향후 개선점 및 나아갈 방향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영상자료실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영상자료 지원 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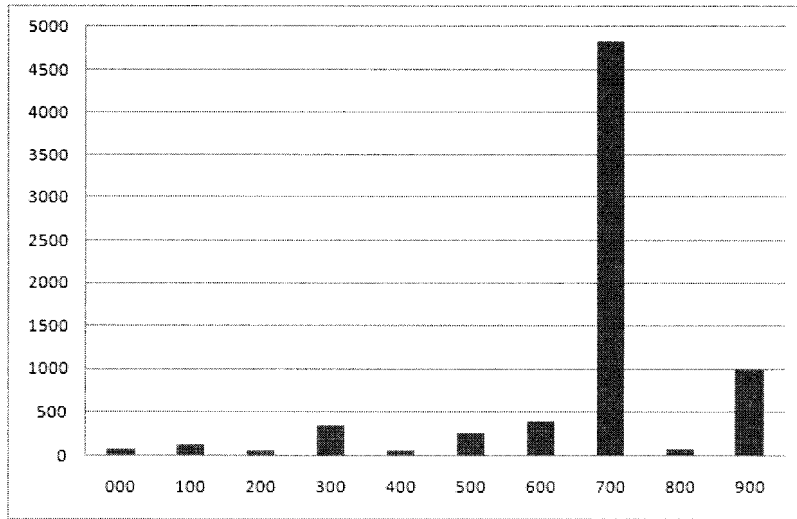
스를 살펴보았다. 영상자료실의 이용률이나 인지도 등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영상자료실에는 다수의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

먼저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영상자료실의 총 좌석 수는 24석으로, 이는 타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적은 수치이며, 각 대학 도서관 영상자료실의 서비스 대상이 학내 구성원 전체라고 가정하였을 때 1인당 이용가능 좌석 수는 더욱 적어진다. 2008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영상자료실의 월 평균 이용건수는 1,397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좌석이 부족하여 영상자료실을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 수는 고려하지 못한 수치이다. 영상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업 이후, 일부 시간대에는 영상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몰려 일부 이용자는 열람 가능한 좌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영상자료를 열람하지 못하고 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앞으로 계속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해 보면 현재의 좌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좌석이 1인용 좌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2명이 동시에 자료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자를 위한 2인용 좌석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영상자료실 이용시간의 확대도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할 수 있다. 영상자료실은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9시까지이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도 운영함에 따라 중앙도서관 운영시간 내에 영상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영상자료의 중요성 및 이용도가 향후 보다 확대될 것을 감안한다면 영상자료실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것 또한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근무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자동대출기와 좌석배정기를 설치하고 영상자료실 입구에의 출입시스템 설치 등 보안 문제를 보다 확고히 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는 장서에 대한 개선이다. 선정하는 자료의 질을 보다 높여야 하며, 자료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림 11]은 분류별 DVD자료 구성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다른 분야의 자료에 비해 영화자료가 속해 있는 700대의 자료 수가 현저히 많다. 이는 영화자료의 DVD 발매량이 다른 분야에 대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상자료실의 장서가 영화에만 치중해서 발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균형적인 입장에서 가능하면 모든 구성원이 원하는 자료를 골고루 소장하여야 한다.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제의 자료를 균형 있게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1] 분류별 DVD 자료 구성

현재 영상자료의 1차적 선정은 영상자료실 담당자 1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수·직원·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영상자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영상자료 장서 개발 담당자를 다수 지정하여 균형적인 영상자료 장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황 파악이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영상자료실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의 관리방안 뿐 아니라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요구와 어우러진 운영방안을 도출할 때 비로소 영상자료실이 대학도서관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상복. 2004. “벤치마킹 기법의 도서관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323-350.

주형일. 2004. 『영상매체와 사회』. 파주: 한울아카데미.

사공철 등.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Feather, J., Sturges, P. 2002. 『International Encyclopaedia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2nd ed.』. London: Taylor & Francis.

고려대학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http://library.korea.ac.kr/>>. [cited 2009.1.13.].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rary.khu.ac.kr/>>. [cited 2009.1.13.].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자료실 홈페이지. <<http://library.koreafilm.or.kr/>>. [cited 2009.1.13.].